



Economist/신용국경제 강현구  
02-6114-2949 hg.kang@kbf.com  
RA 김신혜  
02-6114-2925 chloe.kim@kbf.com

# 인도 9월 소비자물가

## 완만한 오름세 시현하며 예상을 하회

- ✓ 9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3.28% 상승하며 예상 하회
- ✓ GST 도입의 영향에 따른 비식료품 가격 오름세 지속
- ✓ 중장기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으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

### ▶ 전년동월대비 3.28% 상승하며 예상 (+3.53%) 하회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8% 상승하며 예상치 (3.53%)를 하회했다. 또한 전월 소비자물가도 속보치 +3.36%에서 +3.28%로 소폭 하향조정됨에 따라 인도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소비자식품가격 (CFPI)은 같은 기간 1.25% 상승하며 전월 (+1.52%)보다 상승 폭이 축소되어 몬순 기후에 따른 일시적 상승요인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심지역의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GST 도입에 따른 비음식료품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 비음식료품 가격 상승세 확대 등 GST 도입 효과 지속

음식료품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1.76% 상승하며 전월 (+1.96%)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완만한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GST 도입에 따른 세율이 인상된 비음식료품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58% 상승하며 전월 (4.47%)보다 증가세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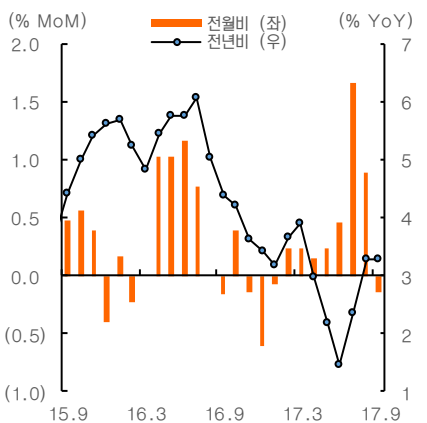
세부품목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을 보면, 담배 (+6.95%), 의류 (+4.63%), 주거비 (+6.10%), 광열 (+5.56%), 서비스 등 기타 (+3.83%)를 기록했다.

### ▶ 중장기 인플레이션 압력 유지로 기준금리 동결기조 지속

인도 9월 소비자물가는 예상만큼 상승 폭이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비식료품 가격의 오름세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물가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발표된 8월 산업생산이 그 동안의 부진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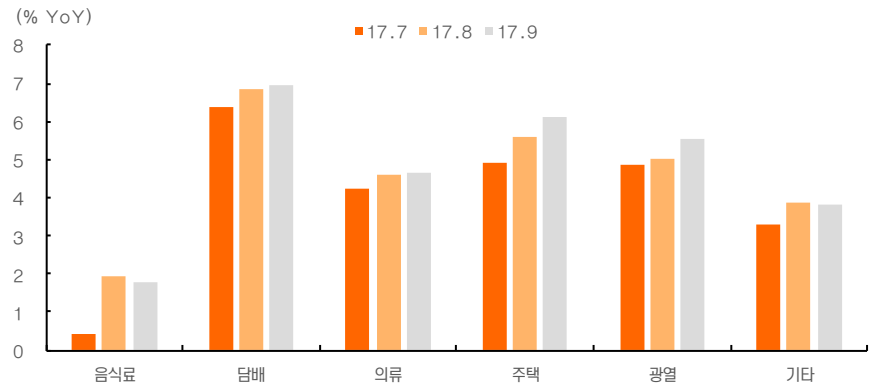
따라서 KB증권은 인도 중앙은행이 현재의 기준금리 동결조치를 연내에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2월 6일에 시행되는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정부의 경기둔화에 대응한 경기대응책 시행 등에 따른 경기회복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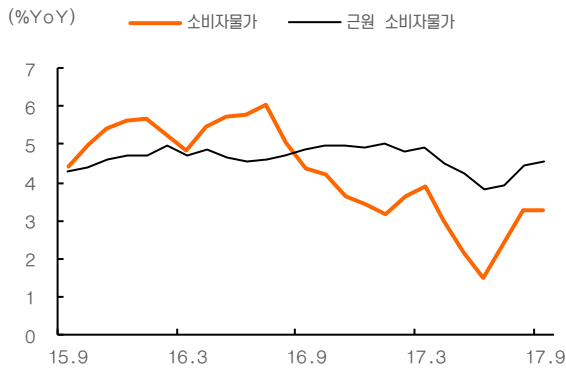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KB증권

그림 1. 소비자물가, 음식료품 가격 상승률 둔화로 완만한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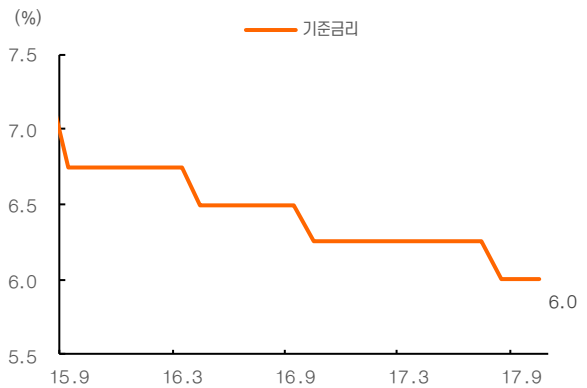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KB증권

그림 2. 근원 소비자물가, 비음식료품 가격 오름세로 상승세 확대



자료: Datastream, KB증권

그림 3. 인플레이션 압력 상존으로 기준금리 동결기조 지속 예상



자료: Datastream, KB증권

투자자 고지사항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